

社說

조선의 평화공세는 문제도 아니요 대전의 참화들 거듭 겪은 세계 대중은 패자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며 그 중에도 만민의 사상을 계승한 인도의 지도자를 중시하여 평화의 소리는 자못 세인의 대중의 주목을 끌고 있고 세계 각처에 평화운동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은 중에 최근에 일본에서 『카가와』 씨를 중심으로 일어난 『세계연방』(후 세계정부) 같은 것은 그 일례일 것이다. 이러한 이상과 운동에 대하여서는 우리도 다 잘 이해하여 찬동하는 바이다. 그러나

平和의再認識

나 우리는 공산주의를 상대로한 평화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려하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 정부의 야망을 가지고 한가름 한가름 세계를 침식 침략해가려는 무서운 공산주의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세계의 식자간의 큰 문제거리다. 세계적 대부흥전도가인 『빌리 그레함』 씨가 작년말에 한국으로 가는 길에 일본에 재류하는 선교사 철백오십명이 모인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일이 있다 『공산주의는 일종의 광신적종교이니

그에대한 유일한 대응책은 강력하고 동적인 기독교의 부흥이지만 찾을 수 있다. 폭탄이나 대포만으로는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없다』

그때쯤이면 아니라 공산주의는 폭탄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종교적 지도자와 근대 정치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요 이미 일반적인 인식이 되었다. 과연 오늘날같이 맹렬한 세력으로 뿔뿔이 오는 적세 사상은 무력으로서는 막아낼 수 없고 차라리 기독교의 힘있는 복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절대 찬성으로 볼 복음운동을 강조해 오는 것은 이 까닭이다. 그것은 앞으로 민중이 만

죽하고 믿을 수 있고 사랑과 정의의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또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보다 더 완전한 사회제이상과 경제제도를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를 원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청년에게 힘있게 유행되는 이 상주이들 가지는 이들이 그 평화주의를 공산주의와도 타협하려고 하는 자기네 태도를 정당화 시키려는 의도와 수단이어서 이런 언론을 내세우는 데는 우선 찬동할 수 없다. 위에 말한 그레함이나 그 밖에 유력한 지도자들이 『폭탄만으로는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없다』는 언론을 가지고 다만 기독교운동을 강조

發 行 所 書 館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編輯 兼 人 吳 九 台
發行 主 田 榮 澤



聖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四章12절)

進退極難한韓國戰亂
苦戰下의 軍民은 勇敢
스티븐슨 氏視察報告

아메리카 제三十四대 대통령 후보로 민주당에서 입후보 하였다가 아이젠하워(共和黨) 씨에게 패한 안드레-스티븐슨 씨는 지난三月에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아메리카를 중시한 민주당의 최 선단에서 공산주의의 거센 공세를 받고 있는 아세아의 나라들이 어떠한 상에서 무열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자기 눈으로 보고 현지인들에게 묻기도 한 후 아메리카정체에 대한 비판을 가한 한국견문기를 요지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한다

한국에서는 내가 예상한 회답보다 의문된 두가지 점을 발견 하였다. 첫째는 아메리카인민에게도 알려지고 있는 난관과 고민과 소모가 많은 한 국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비참한 빈궁에서 우물우물하면서도 남에게 패한 인민의나라 한 국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남해의 종랑속에 있는 제주도와의 평야면서 황폐한 광주에서 한 국군대의 용감한 훈련광경을 보았다. 한편 공군기지와 동해안을 지키고 있는 아메리카 항공모함과 세군대 참전 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였는데 도굴속에 개구리같이 진을 치고 있

韓國의苦悶상태

나는 그동안 왕고하고 감정을 이으며 일상적인 것은 재국가 이승만대통령과는 세번이나 회담을 하였는데 이승만대통령의 목적은 오직 압류당까지 진격하여 한국을 통일하려는 것이 한국이 북쪽의 자원과 농업과 남쪽의 농업과 인구로서 통일되지 않는 우리는 심장은 든든하나 척주가 약한 동맹국을 상대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압류당까지 통일된다면 그때의 일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대(竹)로 엮은 울라 리인지 철의 장막인가 하는 데 정한 길다란 국경선을 공산세력 침투 침략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는 이승만대통령의 뒤를 누가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와같은 사실들로 보아 한국전쟁은 결코 끝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아메리카군대의 전투 부대의 속도로 가빠지는 것을 발견 하였다. 그것은 한국군대가 전선의 절박이나 당당한 것과 미군의 지휘와 훈련방법으로 미군의 장비보다 단시일에 강력한 전투부대가 편성되고 있는 사실등이 있다. 나는 이와같은 사실들을 보고 희망과 실망의 묘자를 밟으면서 한국을 떠났다. 내게 희망적 전망성을 준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우수한 부대가 공산주의의 十六개 국군대와 본래있는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의 역사적의의와 한국국민의 용기와 인내와 명망성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황폐한 한국의 지면한 경제 정치군사면의 모든 문제는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국민이 먹고 살어 나아갈 경제적 안정에 도달하기에는 십여달의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간에 기묘한 전쟁을 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국군이라 하고 하나 대부분은 한국병정인데 그들은 정기적 합정으로 나갔다가는 매일 밤 죽어버린다. 아메리카군병들은 복지를 승리에 두는 것 보다 언제 교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지낸다. 압류당까지 공산공군 미-그를 추격하는 조종사들은 매 없이 기지에 도라온다. 미-그를 추

격은 하나 지상 포화를 받으면
서도 공격의 허락이 없기 때문
에 공격하지 못하고 외분울
품고 도락오는 것이었다. 나는
대만으로 가는 도중에서 한국
문제를 다시 생각하여 보았다
한국은 세계역사를 좌우할런
지도 모른다. 그 이유로는 옛

共產軍投入計劃에 決死反對

날 로마제국을 쳐 들었던 부
족속의 앗처라王자는 오늘날의
앗처라王과 오늘날의 성김사한의
제후에 대하여 세계는 여기서
비로소 위대한 공동대세를 회
연했기 때문이다. 즉 민주진영
연합군과 공산진영제후군이 정
면으로 대립한의의를 말하나

指導力貧弱と調和の問題

했을 따름이오 당장에 공산
주의에 대한 군사력을 부인
하는 것으로 불필요는 없다.
다만 폭탄만으로는 안 될 것이
라고 할 뿐이다.

세계연방을 비롯한 모든
평화운동이 다 공산주의의
침략과 파괴를 막아주는 군
사력이 있어서 평화가 있는
세상에서 할 일이요 그들의

기독교인으로서 아무리 평화
화를 바라고 평화를 힘쓰고
저해도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될 현실을 어찌하
랴 이 슬픈 현실의 원인은
물론 저들에게 있다. 군사력
과 파괴의 수단을 삼투적으
로 쓰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감격한 군사력이 아니면 당
장 저들의 적복과 침략 파괴
행동을 막아낼 수 없고 따라
서 잔인하고 그 무서운 참
화에서 우리를 구할 수가 없
는 것이다.

침략과 적복을 받아서 공산
주의나 공산당의 지령밖에
아무 자유도 인권도 없는 데
무슨 평화가 있고 종교가
있으랴.

공산주의 이념은 몰라도
공산군의 침략은 무엇으로
막으랴 이것을 막기 위하여
현재 한국 전선에서 피들
흘리고 있나니 이 침략과
그 원인을 제거하여 참 평
화를 얻으려면 세계 자유
진영의 대단결이 필요하다.

대학에 성서연구회를 이끄는
준비를 하고 자매단체의 협력
으로 학생회관을 二萬圓에 산
으로 개회하고 있다.

일본측을루터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一千萬圓에 산의
東京학생회관을 세우고 학생
선도 중심거점을 삼고 있으며

『Y에는 교회성이 적다』는 말
솔직히 인정하고 三月中旬

성공회에서도 안드레아 하우스트를 세우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각교파측에서 이같이 이러서는 이유는 지금까지 학생전도를 하였던 YMCA는 교회적이지 아니었다는에서 분발하게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 YMCA측은 각교파의 행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학생 Y위원들을 동원하여 대책을 연구하여 오딘바 교파간의 협소한 견해로는 학생전도 사업을 완전히 수행할수 없다고하면서 기독교적 광범한 입장에서 금년하기학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방법을 확립하리 한다.

東京교회에서는 어머니주일을

악한다. 동정적 후회는 그 중
심에 동흔한 것이 있었으나 대
항의 상대가 없어진 후로는 저
항의 정신이 물러지고 동흔해져
활동이 식어져 버려서 지금은
활동 자체가 미지근하여진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기량이 퇴
아할 정신이 동요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록학생은 학원이라
한데 두입되어 그것을 간파
하고 복음의 중언이 되어야 할
것인데 거기서 고민하고 있다
거기에 지도자의 빈곤이 문제
라는 점을 발견하고 금년 동
산장(東山莊)하기학교는 리
더시움을 확립하는데 주력하여
빈곤정도를 해소할 것과 추
이 학생전도들을 준비하리라 한다

東京敎會敬老會

東京교회에서는 어머니주일일을
(五月十日) 맞이하여 오전에
는 평소대로 오윤태목사의 「어
머니날의 정신」이라는 제목하
의 설교가 있었고 오후에는
연려청년회와 부인전도회 주치
로 당년六十이 넘는 늙으신
어머니들의 위로회를 열었다.
초청받은 늙은어머니 여를부
이 개성는데 출석하신 이는 다
섯분이였다. 그들은 늙었으나
자녀들에게 위로받는것 보다
예수를 믿고 하날로 부터의
위로가 더 크고 감사하다고
감중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모
였던 젊은이들을 도로혀 격려
하여 큰 감명을 주었다.
면접과 부인회에서는 지팡이
를 기령으로 드리고 오경세나
의분은 큰절을 늙은 어머니를
게 드러 그들로 기루게하였다



○ 지난
六월에
동경『요
미우리』
출판사
모이는
화담구락
부창원의
주년기념
예술회에서
장리옥
박사가
간단한
강연을
하였
는데
선생은
예술의
정의
를
말하여
서로
갈지
아니한
음
이나
색을
조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라
며
놓고
우리
한
인
은
어
의
를
가
나
한
두
사
람
만
모
의
도
충
돌
이
되
고
말
성
이
일
어
나
는
까
닭
에
어
떤
사
람
은
속
자
아
모
데
도
나
가
지
않
는
것
이
상
해
이
라
고
하
며
우리
나
라
사
람
들
모
이
는
데
는
일
정
나
가
지
않
는
사
람
도
있
는
모
양
이
나
사
람
은
혼
자
서
는
못
살
것
이
오
서
로
모
여
서
협
력
하
여
가
면
서
살
게
마
련
이
니
그
것
이
문
화
민
의
본
색
이
니
우
리
는
우
리
끼
리
서
로
잘
이
아
니
한
것
이
있
어
다
도
서
로
조
화
해
나
가
는
사
회
생활
을
할
수
있
는
공
부
를
할
필
요
가
있
고
이
것
도
귀
한
예술
이
라
는
의
미
의
말
씀
을
했
다
그
날
저
녁
에
본
사
에서
선
전
으
로
모
이
는
이
를
에
게
본
보
를
한
부
식
들
왔
다
어
떤
젊
은
이
가
밤
이
가
지
고
『홍
예
수
교
신
문
이
군』
하
고
코
웃
음
을
하
고
예
수
민
들
애
도
시
간
이
없
어
서
못
면
졌
다
는
중
게
울
러
서
교
회
에
못
가
겠
다
는
중
들
지
꺼
리
고
있
는
말
을
권
결
에
들
었다
그
러
지
말
고
자
우
간
있
어
나
보
고
그
리
고
기
독
교
를
연
구
해
보
라
현
대
문
화
의
근
보
요
소
가
여
기
있
고
동
포
끼
리
조
화
해
살
수
있
는
도
리
도
여
기
있
다
오

總會夏期修養會는七月

傘下各團體의 統合을 期함

재일 대한 기독교 총회 임원회에서는 총회연주행사의 하나로 매년 개최하는 하가수양회를 금년에는 七月二十八일부터 三十一일까지 三박四일간 비하교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동 임원회에서 하가수양회별 정을 이루 결정 발표한 것은 금년수양회는 총회산하 부원전 도회와 연려성년회를 통합하여 같은 시일에 같은 곳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각부의 준비와 관심을 모으기 위함이라 하는데 각지방회에서도 이 수양회 집회에 각별한 형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동일수양회의 상세한 루트는 차후로 발표하리라는 데 유관적인 복안에 의하면 개회예배와 매일의 예배는 한 장소에 합하여 예배하고 강의와 형의회는 각부별로 진행하리라 하는데 구제적인 문제는 교육국에서 더 연구하리라 한다.

四週間に二十七區域訪問

京都教會春期大專訪

京都교회에서는 四月十三일부터 五月十一일까지 한달동안 춘기 대심방(大專訪)을 하였



嫉妬心

미국법률전문협회에서는 一九五二년의 국제인물로 대한민

국 대우령 이승만박사를 추천하였다고 한다. 주미 한국대사 양우찬씨를 통하여 그 사실을 한국측에 전달하고 동 협회는 이박사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하면서 『이승만박사는 二十세기 후반(後半)에 있어서 동양의 의나라(東方禮讓之國)에 건재한 세기적인 선각자(先覺者)라고 격찬(激贊)하고 따라서 이승만박사는 압록과 독재 전제국의 학정(虐政)에서 한국을 구출한 은인이며 현재에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자유박탈자(容許주의자)와 파악하게

다. 대심방은 멀리 두시간 이상의 거리(距離)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마이바라(米原)와 요카이제(八日市) 신도들의 가정으로 부터 시내에 이르기까지 二十七구역을 방문하였는데 四주간(四週間)에 총인수 四十七명이 동원되었다. 그 결과 교회출석자들은 높아졌고 신도간의 사랑의 친밀성이 두터워진것이 확연하다고 교회측은 증언하면서 라항사리 에 교생하면서 지나가는 코로전체를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이같이 방문하는 일이 이러한 기를 기다리며 기도한다고 말하였다.

希望에 感激하는 靑年들

苦難中에도 平和에 前進한다

世界 YM 主事 월니암·존스 報告

이들은 世界 YMCA 동맹 유니온지부장 주사인 월니암·존스씨가 월 드롭유니온誌에 두고한 『一九五二년의 유니온의 경험』이라는 보고에서 전제한 것인데 시련중에 있는 세계에 있어서 민족상생의 비극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처한 우리에게 가르치는바 없지 아니하다.

지나간 一九五二년의 유니온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거치는 것도 많았고

목사님 목사의 직은 성직이라고 하는 데 성직의 자리는 아무나 함부로 되고 싶으면 되는 직업이 아니니만큼 알파 동서야 할 것이 아니니가 아니라 성직자들이 그 성직을 버리고 음모와 작당과 술책 본성의 정체가 되는 본이 많은 원일이니가 나는 이 사실을 이해하려고 고민하다가 다음의 몇가지 점을 생각하였으니 이것이 잘못이 아닐는지요. 우리나라는 七十年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 그 때는 구한국(舊韓國) 시대여서 예수로 전도가 어려웠고 교회지도자도 예수인으로 천명하는 순전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을 보았다. 그러나 일한시대후

투쟁하고 있는 한국인민과 세아 인민의 선각자라는 추 대한영사를 하였다 한다. 이 사실은 금년 一月十八일에 된 일인데 이제야 취급한다는 것은 뉴이쓰성이 없는 이야기 같이 생각할 수가 있을 줄 아나 필자는 뉴이쓰(새소식)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취급한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자는 의도에서 실례(實例)로 드러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박사의 이야기들 드러낸 것이 너무나 아지도 새로워서 자미가 적은 듯하고 아첨하는 듯 한 느낌이 이러날가 하여 실은

생각도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현재 생존한 인물이니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선대(先代)의 인물이라고 하면 존경했던가 하면 그렇지도 아니하다. 말하자면 남을 높이 고 자기가 겸손하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던지 자기들 나라 내기를 바라고 남을 높고 가까이 못된 근성이 있어서 그런 말도 하는 것 뿐이니 이승만박사가 자기 호불호(好不好)가 눈앞에 있는 이들 드러 설명합 이 더 좋은 일인 줄 알러서 이렇게 하였다. 전일 어떤 모임에서 김옥균 이퇴계(金玉均 李退溪) 선생 등의 전기와 자서전형의 일기책 전시(展示)된 것을 보고 속으로 눈물을 먹음은 기억이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



敎役者

처가를 중에서 정치생활의 제도와 교회들 민족구출 운동의 장소로 삼고 선교사들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 중에서 오늘날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본길로 (정치)나갔고 그동안에 혁명

식하고 알하고 간에 대부분의 이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니온사람으로서 우리의 과거의 시대적 저지않은 비극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사실은 우리속의 화랑과 로마시대의 유산이 있다는 것과 중세기에 있어서는 유니온이 기록으로서 통일되어 있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같이 협소한 나라가 수없이 분립되어 있 게 되었다는 것은 근대에 이어진 것으로 그다지 역사가 깊은 것이 아니니 우리는 이 현상에 부자연함을 느끼는 것이다. 채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소위 한 것이 아니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보지 못한 채 이었다. 말하자면 그런 것도 우리민족이 비록 일제강점기 때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민족 중의 선각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적었던 때문에 나타내려는 생 각들이 없어서 파묻어 버렸고 혹은 남에게 그런 자료(資料)를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생 각한다. 일본사람들은 섬멸하여 서라도 이오 저모도 밀려가며 서로 사료(史料)를 모으고 기록을 남기었다가 자기들의 선각자를 자기민족에게 한 사람 이라도 더 알게 하려고 노력 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패전 (혹은 패망)한 왜놈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배후에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의
動
靜

(投書)

까 이런점은 이해곤란 합니다
 세세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적
 인 곤란에 봉착하여 민족통일
 의 위기에 빠졌으니 교역자가
 어찌 적은 교회만 붙잡고 있
 을수 있느냐 교회는 동양으로
 흐러지고 말은교회가 있어도
 모를것은말은 교회도 없으
 나 파도기에 조류 관리가와 정처

때때로 우리사이에서 는 통일 된 유－통연방문제가 논의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참다운통일 연방 실현은 정신적 일치가 없는 성립될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때문에 통일문제가 논의될때 이 정신문제보다 물질적인 면으로 한차 유－통의의 나라에서 감조함을 드를때 불 안스러운 것을 느끼는것이다.

一九五二年에는 적극적인 통일노력이 나타났다 여러가지 회합에서 유－통통일의 문제를 주제로서 취급되는 하였다. 어떤때에는 수백명의 청년들이 국적 차이로 생기는 여백권과

필자의 이 많은 이제 민족적
양심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적극성 있는 선한 공세 즉
실력있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는 것과 배울것은 배우고 취한
것은 취하는 겸손한 민족이
되고 남을 자기보다 낫게
이르는 그리스도인 더욱히
리스도정년들은 우리나라와
리민족의 자정과 단점을 올
루 발전 파악하여 힘차고 어
센 전진을 하도록 하자는 것
이다. 일한적으로 흔히 볼수인
는 아름답지 못한 질투 혐담
욕설 때담 중오 자담과 쓸데
도없는 요만한 마음을 버린후
우리인족에게 그리스도의 아
이 갚어지게 하여야 할것을
주장강조하는 바이다. 그대
비로서 존경 우애 협력의 민
족으로 발전이 있을것을 생각
한다.

가 되지는 의도 있는듯 한
때 꼭도기니까 코역자의 사명
이 정처가로서의 일보다 성직
이 더 중대하지 않느냐 하는
반문이 나오면서 불안스럽습니
다. 나는 불평보다 안락까운
생각에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 미즈뎌으로
 사히 점뎌은 기독교년 학생들의
 성직에 대한 생각을 아디음코
 우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이러
 나겠는가 알 이러나겠는가 생
 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알기 보는
성직은 사탄의 의사로 좌우되
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기를
부어 세우시는 거룩한 일이며
그 직위는 열한 회직하는 것
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세우시는 자리다. 열한은
도망쳐도 하나님의 세우시면

세과회가 주를 매워 버리는 일
도 있었다. 또 어떤 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때때로 한자의
에 모척하여서 정신상으로 나
심리상으로 분열되는 근본문제
를 제하기 위하여 편견과 물
리해를 극복하고 참다운 이해
(理解)와 사람으로서 나라와

나를 업힐하려고 공을
러놓고 환함을일도 있다. 유
일된 유-물을 실현하려는 이
상은 이같이 넓은이를 사이에
열광적으로 싸이 트고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유-들의
군사력이나 공업과 경제계획을
중심으로한 통일을 의미하는것
이 아니고 정신적인 한 기초
위에서 발전한 문화등의 유산
을 중심으로한 통일이어야 한
다고 강한 주장을 하는것이다
둘째문제는 동쪽과 서쪽 사
이에 있어만 가는 분열상태인
데 유-들의의 나라들 사이
에서 이러나고 있는 분열들은
단순한 이데오로기-관계로 말
미암은 것일런지 모르나 유-
들에 있어서는 신체의 담조질
고 상처받은 것이다. 유-들이
라는 것은 독일 중앙부들 호
르는 오-덴江 서쪽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동부독일은 물론
이요 뱀간도와 쓰련령까지
를 포함한 구역을 말하는것인
데 서쪽유-들의의 통일을 우
리는 바라는바가 아니다.
작년에 필자는 스모-초관게
로 유독전체의 지역을 여행하
었는데 어대 가던지 참마음.

서야 팔자이다. 우리 젊은사람
은 자기의 추미와 기능과 관
심이 있는 방면에 전문적인
기능(기술)을 연마하여 일생
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취 나할것
이다. 신앙은 부르신 하나님께

두터히 하여 주실 것이다. 그 성
결을 올바루 푸러 주실 표역
자의 직일은 지극히 귀한 일
이다. 신도는 그에게 일한적
인 경력이 없도록 할 의무가

부가 되어 있다. 우리는 자기의 직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성직자를 높이 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같은 원리적인 바탕 위에 志操의 흔들리는 교역자를 통해 우리 회 말단 불제자의 발원이라고 볼 것을 밝히려 하겠읍니까?

평화를 막고 기도하는 사람
들을 맛났다. 그들은 자유를
평화로운 가정생활의 행복과
평등된 기회와 일터에서 하나
님의 주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였다.

셋째는 잊을수 없는 올림피아
의 경험이다 수차 반복된 처

梅林에서
讚頌歌을
高唱

大阪教會
(日三)

野外禮拜

大阪교회에서는 지난三日主日
시외매립(市外埋林)에 나

시들지 말라고 산삼요훈
고마워라

고생사
나와
남아다의
세에
드리
되시
금번에
신도들은
이종현목사를
환희가
적지
않았다.
그날
유치한장로의
기쁨은

참 아름다워라 찬송도 즐겁다 별은 노래하고 에덴 동산도 그리워라	주님의세계라 부활 초음에 나뉘 충추니	바람은 살랑살랑 향기를 실고 그향기 가슴에 꽃고 날린다
---	----------------------------------	---

도 다 잊어버리고 그대로
나에 오르기도 쉬었다. 이 목
님의 설교에도 있었고 찬송
의 도 있었거니와 하나님의 지
그 음씨를 성경의에서 의

종달새 창공에 높이 뜨고
골도다 그노래 주를 찬송
날개가 있다면 나도 함께
합께 !

〔新約〕
〔講解〕
빌네몬書

1
5

「빌네론! 빌네론은 이 편지
를 받는 사람의 이름인데 꼭
로새 사람으로 바울의 전도들
을 고 믿음에 드러선 모양이
다」(19) 빌네론은 자기 집에
둘을 둔 사람으로 그는 사
람이요는 사람으로도 알려

참한 사홍자리(戰戰) 유(유)음에
서 두주간이라는 절지도 앉으
기간에 우애(友愛)에 넘친
은취기로 여려가지 운동경기들
이 시뻘되었다. 그사이에는 미
혹한의 본색이나 이때오도기
문제나 문명의차의 물을 잊으
리코 경기규약에 따라 했으
남녀들이 경기에만 각자의 기
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던
기이다.

나 우리 인간이 물과 불 열과 빛의 힘을 품고 있다. 이러한 화학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이다.

求道
 精교 그 강령 精誠敬業 精
 實心도다와 實心敬業 實心
 자모 그 강령 子母敬業 子
 母敬業 子母敬業 子母
 말이었다는 것도 子母敬業 子
 있다. 그는 끝도없이 子母敬業 그
 리스도인으로서 저지 아니한
 감화를 퍼쳤다.

二本書記錄의 事情 別네운은
오네시모라는 종을 가지고 있
었다. 그럼데 오네시모가 別
네운의 소유를 가만히 품었
다가 후에 탈각되어 또기워
로마에 도망하였다. 학자들의
추측이지마는 오네시모가
마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
간것은 바울이 자기주인 別
네운의 선생임을 알고 도음
을 청하였던 것이리라 한다

후 원연하의 그의 사정을 참찬한
되게 하되 새사람으로 빌네을
보내면서 오네시모와 빌네은
의 사이를 원렬하게 하려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이이다.
三本書의特徵과意義 이 편지는
개인적인 사사로운 편지면서
정경(正經)속의 드렸다는것
은 그 명백한 이유가 알수
없으나 추측컨대 이 편지에
바울의 인정깊은 면이 너무
나 풍부하게 나타났다는것과
이 편지에 기록된 사실이
예수의 十字架의 속죄에
같은 것이 있기때문에 이
편지에서 예수속죄의
진리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본다. 이 편지의 특징은 순
전히 개인적인것과 빌네은과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심
정이 선명하게 기록된것은
신약성경중에서도 유색있는
편지다.

四記錄年代의場所 바울은 이편
지를 로마옥중에서 에베소편
지와 골로새편지와 함께 써
서 두기로 편에 오네시모를
함께 골로새에 보내었던 것
이다(골49) 따라서 그 연
대는 六十一二年일듯 하다
五本書內容分解

1 서두 인사	1-13
2 감사의 말씀	4-7
3 오네시모를 위한 변호	
4 결말	8-20 21-25

壇 上한갈대도꾸지아니하시는주님

(마태十三장十八—二十一절)

講

金德成 牧師

『상한갈대도 꾸지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아니하신
다』는 말씀은 이사야四二장三
절을 인용하신 말씀으로 이사
야의 메시야 출현에 대한 예언
으로서 점차 오실 메시야의
성품을 시(詩)적으로 잘 그
려낸 말씀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상한갈대와 같이 마음에 상함을
받아 버림을 받을수 밖에 없
는 자를 꾸어버리지아니하시고
건지시는것이 예수님의 참 사
랑의 심정이시며 죄인병인 암
제받는사람 연약한사람들을 불
쌍히 여기시궁 홀로 배부신
주님이심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종교의 형식만 주장하는 바리
새인과 그 영향을 받은 유대
인들과는 달라 예수께서는 인
간을 한없는 동정심을 가지
고 보셨읍니다.

먼저 상한갈대에대하여 몇가
지 생각하여보고자합니다. 이갈
대는 영어(REEDE)로 번역되
여있는바 유후타에갈하류 나일
강상류 그리고 요단강변에 무
성하여 있는 식물인 한 종류
입니다. 첫째로 상한갈대는 약
한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
대는 약합니다. 상한갈대는 더
욱약합니다. 이것은 우리인간이
얼마나 약한것을 말한 것입니
다. 우리인간은 진실로 갈대와
같이 약한것입니다. 내가 죽을지
언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굳
게굳게 맹서하였던 베드로였으
나 법정에 잡혀서 신문당하지
는주들보고 그는 두려움을 이
기지못하여 세번씩이나 예수들
부인 저주까지 하였읍니다. 또
한번하기 심고 약하여 너머
지키쉬운것이 인간의 약함임을
인합니다. 마음은 아니라 우리들
신도 병나고 죽고하는 연약한
것이올시다. 또한 우리의 마음
은 연약하여 늘 가다가 너머
지며 실수하게도 됩니다. 바울
선생도『내가 원하는바 선은
행치아니하고 도로혀 원치아니
하는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
라 나는곤고 한사람이로다. 이
사랑의 몸에서 누가나를 건져
내라』(롬七章19-24)하며 자기의
약한것을 솔직히 고백하였읍니
다.



교회 본 예배와 교회학교예배
를 결합시키는 방법도 많다.
예를 들것 같으면 중등부가
합창을 하며 본 예배에 봉사
하게 할 수도 있다. 이 합창
대는 그대로 부의 예배에서
같은 봉사를 할수도 있다. 또
한 클라쓰 혹은 한 부가 총
출동하여 본 예배에 연극화들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런
합동예배 때에 사용하는 찬송
가에는 양편이 다 부를수 있
는것을 어느 정도 사용할수

있을것이다. 설교의 예화를 어
린이가 행한 기록에서 가져오
는것도 좋다. 이와 같이 교회
는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것
을 사용할 줄을 모를 따름
이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어린이들
에게 이러한 예배 훈련을 시
키려면 또 예배를 중하여 그
들을 지도하려면 그 자신이 영
합상 자기의 신앙 생활에 영
감을 부여서 풍부하게 하여가
야 한다는것을 강조한다.

니고 국한된 어떠한곳에 사용
되는대 불과한 것일다. 찰
(弓) 악기(樂器)를 만드러쓰
며(용기四〇지) 집행이(列王記
十八장21)를 만드는 정도이었
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스
사로가 너머나 나약하고 자기
의 무능하고 부족하며 자기는
이세상에서 아모소용이 없는자
와같이 생각되며 낙심될때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비
하신 주님의 음성『상한갈대도
꾸지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지아니하신다.』는 로마우신
말씀에 위안을 받게 됩니다.
하리제인들이 음행하다가 붓잡
힌 여인을 다리고 와서 살기
등등하여 죽일려고 할때 예수
의 눈에는 이 여성이 상한갈
대와 꺼져가는등불과같이 보이
었읍니다『누구든지 죄없는자가
먼저 돌을들어 이여인을치라
죄주는 자가없는나 나도 죄주
지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치말
어라』하시며 상한갈대를 붓을
어 완전한갈대로 꺼져가는 등
불을 돈구거뒀을 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더럽다고 총
배알음을 받는 창녀중에서『막
달라 마리아』같은이들 뽑아내
섰고 죄인같이 취급하는 세리
중에서 사개오와 마태같은이들
불르시고 천대받는 어부중에서
불쌍무식한 베드로 안드레 요
한 야곱 같은 이들을 뽑아내
신것입니다. 용병적인 바리새인
의 기도보다 감히 하늘을 쳐
다보지 못하는 세리의 기도들
드르시며 나면서부터 눈먼자의

예배는 사람의 심령의 최고
표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의 최고
축복이다. 이른도 어린이도 다
이 경험이 필요하다. 거룩으로
이것을 얻고저 하거나 가차
없는 인위적(人爲的)인 대용
품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어
린것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있어서 안 될것은
예배에는 사람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강조하는 면
도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
므로 우리는 될수 있는대로
목상을 자주 하며 좋은 음악
이나 미술등을 중하여 이에
준비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연구 문제 가장 큰 감동들

예배는 부르짖음을, 찬미의
배제를 받고있는 찬양자의
간곡한소원을 이루어 그들을만
저 고쳐주셨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벽돌구이로 멸시
를 받는 이스라엘백성 가난한
약소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였읍니다『편을내
행』어떤 가난한 가정에서 자
라난 목동『다윗』을 불러『관
니앗』대장을 쳐죽이고 저들을
어 이스라엘의왕을 삼아 건국
하게하시고 눈초에서 자라난
농민『아모스』를 불러『정의』
의 예언자를 삼아서 당시부패
한 상류계급 귀족사회의죄악을
중격하게 하였읍니다. 또한 가
난한파부의 일진두꾼의 적은
현금을 귀염게보시고 축복하시
며 가난한 광부의아들 마한루
더를이르켜 위대한 종교개혁가
를 삼으신 것일다. 하나님은
참말 부족하고 미약한 우리들

P는 한국에서도 유수한 무
역회사의 사장이다. 그밑에는
수십명 사원이 있고 경영하는
공장이 셋이나 있어서 자기손
으로 먹여살리는 식구가 수백
명이되었다
P는 지에서 대학을 마쳤
고 영어가 능통하였다. 천생
래남자로 인물도 잘났을 뿐
아니라 마음이 너그럽고 게다
가 지혜가 있고 일을 처리하
는 역량이 있어서 그리고 사

준 예배경험을 보고하라. 그것
을 몸으로 여러분의 학생들
그와 같은 감동을 받도록 지
도하기에 좋은 참고를 얻을것
이다.
二본장에서『자발적 예배』에
관하여 언급한 상함을 여러분
의 클라쓰나 학교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어떤것이
더 있으면 좋겠는가?
三여러분의 클라쓰에서 자발
적으로 일어나는 예배 상황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하여서 어떤 성교과 실패
를 보았는가?
四교회학교의 예배 형식에
관하여 논의하라. 이에 참고되
는 도서 목록을 들어보라.
(끝)

傳道欄 P社長
달려

本國新聞論調

병든 새싹

民主新聞社說

오늘은 어린이 날이요 또 뽀뽀
 童育成保護週間の 第四日이다。
 지난 해의 少年犯罪는 一千六
 百餘件에 이친다. 男子가 九六
 十을 차지하고 그 犯罪相을 보면
 劫盜가 七〇% 雜犯이 一六%
 強盜六% 住居侵入五% 사기
 公算三% 全위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刑罰 責任能力 없는 아
 이들이나 累犯도 생각할 수 있
 는데 넓은 天地에 의지 할 것
 없는 半童들만의 할 것 이니
 이대로 돌진대 激増될 것 이니
 예상되는 바이다.

이제 犯罪相을 살펴보면 사
 출되어서 남의 집 담뚱어넣는
 格으로 먹음에 서달려서 罪를
 犯한 자리가 歷歷한 것은 盜犯
 이 절대多數인 것으로 명백하고
 成人의 犯罪과 그나름이 남어
 지 難犯이 많은 것과 한두차례
 의 犯行으로 인하여 天真한童
 心이 팔팔대 어둔해지고 社會
 혼란에 물들 타서 智能을 다
 한 사기공갈行爲와 暴行과 위
 력을 쓴 強盜行爲는 犯罪集團
 을 상상해서 足할 것으로 보
 인다.

가난하면 천한은 정한 이치
 요 속이 비면 여를 또한 차
 디찰것이고 통절대가 없으면
 아적 미숙한 사람이요 바야흐

로 學園에서 교육을 받고 가
 정의 보급자에서 작고대할나
 세이다 이社會를 이어받아 받
 전시킬 담당자로서 무거운 책
 임이었으니 기대도 크거니와
 나라의 보배요 국가의 새싹이
 아니냐 이나라의 새싹의 전부
 가 아닐지언정 병들어 풀마치
 고있는 한가지와 한줄기를 그
 대로 두고 볼수있을것인가 어
 림들은 눈물있는社會와 사담있
 는 環境을 원하고있다. 社會環
 경이 더 큰 責任을 져야할
 社會에 대하여 단순한 罪정이나
 道德感으로 安ん질수없고 종
 더 적극적인 善美의 길을 찾
 어야할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정된 코1보인 少年院에서

심판하고 부속 少年院에서
 만으로서 만사가 다마련되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을 교육하는 방법에서야 할것이다
 지금이나라예는 子女을 위하
 여 세워진 教育機關은 亂立되
 고 심한것은 内部는 整조차 거
 등하면서 阿洲密林속에 들어가
 黑人을 상대한 전도(圖) 유와 있
 罪 같은 사람은 찾아볼일이 없
 는 유감이며 용솟음친다 정부에
 산으로 움직이는 社會部의 일
 이 한가지 더느린것과 社會
 事業家 宗교가의 후발한 關心
 과 事業力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事業家들이 企業에
 따른 한해의 부속사업으로하고
 노동자의 訓練과 安ん지기관할

詩

내손을만지시니

萬

내 손에는 온갖 것을
 귀하다 볼줄고 있었나니
 마치 왕의 보물인양
 금이나 옥이나 보석인양
 오시에 내손을 만지시니
 주홍 빛에 물든 임의 손이
 내 보물은 임의 발밑에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라
 『빈 손이라야 일을 할것이니』
 내 손은 헛된 수고로
 이 땅의 먼지로 더럽혀졌나니
 내 기껏 나누라는 게

변변치도 못한 것만!
 임이 오시어 내손을 만져주시니
 그의 손엔 붉은 상처!
 놀랐다 어느새 내손에
 온갖 더러운 흙이 잔뜩 없어라
 『깨끗한 손이라야 쓰겠는걸』
 너를 시켜 내 일을 하려니
 내손은 이미 열에 달 손
 근심과 걱정 조급한 새학에
 헛되히 세를 열심에 떨리며
 그대도 임앞에 몸진 못했나니
 임이 오시어 내손을 만져주시니
 그손에 힘과 약을 지니시어

그대도 임앞에 몸진 못했나니
 임이 오시어 내손을 만져주시니
 그손에 힘과 약을 지니시어

한글 표 실 (제5 시간)

담 당 張 曉

(물음) 귀하가 지은 “받침—
 그 쓰기와 읽기”라는 교안에
 “너머”라는 말이 있는데, 그
 것은 분명히 틀림이 아닙니까?

(京都敎會 夜間學校 모씨)

(대답) 이 물음은 내가 직접
 으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물으시는 범위를 잘 모르겠으
 나, “너머”를 문제로 삼으신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 여기
 에 들추어 해답하겠습니다.

그 교안은, 내가 그 표리말
 에 쓴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과 지면의 제약을 받아 임시
 로, 받침이란 합부로 하는 것
 이 아니고, 이러한 받침은 이
 러한 경우에 한다는 것을 보
 이는 정도의 교안이며, 그것
 으로 가르치는 이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는, 그대로는
 넘쳐하지 못함을 나 자신이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교
 안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게
 됨은 한글 공부의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머”는 틀림이
 아닙니다. “공은 담 너머로
 뛰어 넘어갔다” 할 때의 앞의
 “너머”는 뒤의 “넘어”와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뒤
 의 “넘어”는 “넘으니, 넘으면,
 넘고, 넘는다, 넘다가” 따위와
 같이 끝바꿈(語尾變化)하는
 꼴이씨지요, 앞의 “너머”는 “넘”
 에 “어”가 붙어서 이름씨(名
 詞)가 된 것으로서 “산이나
 집이나 담 같은 높은 것의

끝다→끝의 가라앉았다, 끝이
 몇 자이나”, “아들이 많다→아
 들이 많음을 자랑한다” 등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음” 이
 의의 홀소리가 붙어서 된 것
 은 통일성이 없으므로 밝혀지
 아니하고 줄기 끝의 받침을
 다음에 붙는 홀소리의 첫소리
 로 적는 것입니다. 그 교안에
 도 있지만 통일안에 심린
 보기를 여기 보이겠습니다.

(귀역-어리) →귀여거리, (막
 -암)→마감, (막-애)→마개, (맞
 -웅)→마중, (몸-엄)→무덤, (넙-
 우)→너무, (잡-우)→자주” 이
 밖에도 얼마든지 이런 따위의
 말이 있을 것입니다. 또 끝소
 리마디에 받침이 있는 이름씨
 에 “이” 이외의 홀소리가 붙어
 서 딴 씨로 되거나 그 뜻이
 변한 것도 “(목-아지)→모가지
 (밖-알)→바깥, (집-웅)→지붕”

따위와 같이 본디의 꼴을 밝
 혀지 아니합니다. (통일안 제
 12-15항 참조) 더 깊이 연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교안 가운데 2쪽14줄 끝
 에 “두어야” 5쪽6줄에 “불는
 발” 이 여섯 자가 인쇄할 때
 빠진 것이오니, 그 교안 가지
 신 이는 적어 넣어 주시기 바
 랍니다.

(물음) 갑자기, 일찍이 끔 직
 이” 따위는 이렇게 적는 것이
 옳습니까? (京都 모씨)

(대답) 갑자기, 일찍이, 끔 직
 이”로 적어야 합니다. “끔 직

저 쪽"의 뜻이며, "너머게, 너
머로, 너머보다, 너머처럼" 등과
같이 도를 붙여서 쓰는 말입
니다. 이와 같이 풀이씨의 줄
기에 홀소리가 붙어서 그 말
이 다른 씨로 몸바꿈(轉成)
한 것 가운데, "이"와 "음"
이 붙은 것은 그 줄기의 본
디의 판(받침 있는 대로)
을 말하여 적습니다. "물이

러오는 마침 단골로 다녀
살 아는 여관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거처하는 안방을 한번
내서 들기로 하고 우선 목욕
을 하였다. 편천만은 못해도
오백간만에 고단한 몸을 온천
에 잠그니 머호는 기분이 매
우 좋았다. 더구나 오래
비 생활을 하다가 잦은 산중
사는 선녀같다고 할까 구중
궁궐속에 자라난 공주딸과 그
야말로 예닐 두대문 세대문
속에서 금세 자라난 「유수」라
고도 할만하고 그리면서도 현
대사회에서 남에게 뒤떨어 지
지않는 교육을 받았고 상당한
취미와 교양을 가지고 있고
인물도 그만하면 복스럽고 약
전한 면면을 아내로 맞아 더
리고 온것을 생각할 때에 그
리고 명예와 한방에 들고 넘나
들며 목욕을 한다고 하는것은
자기의 저지아니한 영광과
권이란 행복감을 가지게 되며
서 기쁨들을 더리고 와서 떠
드는것이 다 눈아래도 보이고
정면이 여기는 생각까지 있었

다. 속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물어물 넘겨서 혼인이 되도
무관하고 어쨌든 말은 할 수
있는대로 문제가 안되도록 하
였고 또 자기는 어쨌든는 할
머니에게 맡기고 디려다 기를
생각도 아니했던 것이다. 그러
데 명애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을 들을때에 부끄러
고 미안하고 명애가 애처로우
생각에. 아직 세상고생도 못해
보았을 사람으로 그런 말을
하는것이 기속하고도 고마워서
우어라고 대답해야 좋을는지
알수없어서 한참이나 명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때의 명
애는 더욱 아름다워 천사같이
보였다.

『고압소』
겨우 한마디를 하고 러호는
화제를 돌려서 이튿날 아침에
는 일찍 예배당에 찾아가자는
이야기를 고냈다.

이튿날 주일에는 두사람이
연안을 교회로가서 새가정의
첫 예배를 보았다.

京都市中京区丸太町通烏丸西入
電話 (3) 六二一七・二四九五番
自宅 京都市上京区相國寺西門前町六四七
電話 西陣 (4) 六九九九番